

다향오리

다향착한정육점 2호점 부산점 오픈



다향오리가 신세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금류 전문 레스토랑 다향착한정육점 2호점을 연다고 12월 21일 밝혔다.

다향착한정육점 2호점은 아시아 푸드 콘셉트의 바비큐&스테이크 덮밥 레스토랑으로 다향오리가 직접 관리하는 100%

국내산 다향오리, 다향 닭을 재료로 한 다양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다향착한정육점은 지난해 4월 신세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 첫 매장을 연 이후 두 번째 매장이다. 다향착한정육점 2호점 부산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표 쇼핑 랜드마크로 성장한 신세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한다.

부산점에서는 1호점 시흥점 판매를 1위인 아보카도, 수란 등과 함께하는 통덕 스테이크인 '스테이크 덕밥'과 오븐에 구운 허브 오리를 특제 소스 3종과 즐길 수 있는 '로스트 그릴 허브덕'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다향 닭을 메인으로 한 로스트 그릴 치킨 △감자를 면처럼 뽑은 포테이토 누들을 중화풍의 XO소스로 볶은 포테이토 누들 라이스 △오리고기 본연의 맛을 살린 불고기 덕밥 △베트남 스타일의 치킨 바베큐 라이스 등이 있다.

다향오리 관계자는 "다향오리만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트렌디 하면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오리고기, 닭고기 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조화인코리아,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다솔

2018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계·도압장 수상



지난 12월 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국소비자연맹 주관으로 개최된 '2018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정석찬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장, 박길현 육 가공협회장, 이창범 낙농진흥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적용·평가한 결과 우수한 도축장과 집유장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특히 베스트 도축장은 소비자단체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상으로 그 의미가 크다. 포유류 도축장 4곳, 가금류 도축장 3곳, 집유장 2곳, 지자체 1곳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했고, 도축장과 집유장 각각 1곳에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상이 수여됐다.

가금류 도축장 3곳 중 도계장으로는 (주)참프레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사조화인코리아 나주공장이 우수상을 수여받았고, 도압장으로는 농업회사법인 (주)다솔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평가 작업을 통해 도축장의 위생 수준이 점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느낀다"며 "물론 축산물의 위생, 안전 문제는 현재의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수상업체에 많은 박수와 격려를 전했다.

다향오리

‘10기 소비자 모니터 요원’ 모집



다향오리는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요리에 관심이 많은 2040 여성을 대상으로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 10기'를 12월 31일까지 모집했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한국에 거주 중인 20~40대 여성으로 평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요리사진 찍기, 레시피 노하우 등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이다.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되면 △신제품 사전 평가 △제품 아이디어 및 이색 레시피 제안 △다향오리 소식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통해 신제품 시식과 아이디어, 정보 교류 등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은 신제품 평가와 분석, 레시피 제안 등 다향오리가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정기 프로그램이다. 이번 10기는 총 30명을 모집했으며, 약 6개월 간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소비자 모니터 요원에게는 매월 다향오리 제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다향오리 신제품 테스트 및 관련 행사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다향오리 관계자는 "유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업계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는 식품업계에서 소비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는 브랜드 입장에서 큰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생한 의견과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